

경제관계장관회의 겸
물가관계장관회의
25-9-3
(공개)

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

2025. 11. 4.

관계부처합동

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(요약)

I 배경 및 문제점

□ 추진배경

- 수산물은 전통적인 유통경로인 위판장, 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되나, 이동·대기시간에 따른 유통 효율성 저하로 근본적 개선이 요구
- 다만,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나 노동집약적·비표준화된 수산 현장으로 ICT 활용이 미흡한 수준
 - 최근 발전하고 있는 AI, ICT 등 기술 적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

□ 문제점

- ① (높은 유통비용) 쉽게 부패·변질되는 특성상 콜드체인이 필수적이며, 유통과정상 필수시설(냉동, 수조 등)로 농산물 대비 높은 유통비용 발생
 - * 수산물 유통비용률은 평균 63.5%로 농산물(49.2%)에 비해 높은 편('23)
 - 복잡한 경로, 현장 경매·수작업 중심의 구조 또한 불필요한 유통비용 야기
- ② (높은 가격변동성)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 변동성*이 확대되고 있으며, 위판장·도매시장의 경매제는 단기 가격 변동을 부추기는 요인
 - * 연근해 생산량(톤): ('15) 1,058,319 → ('20) 933,880 → ('24) 841,347
(오징어) '20년 56,989톤 → '24년 13,546톤, (명태) '00년 86,832톤 → '24년 28,999톤
 - 더불어 소비자 유통 정보 접근성 부족은 수산물 유통환경에 대한 신뢰 저하

□ 유통구조 개선 기본방향

- (구조) 온라인 도매시장 등 간소화된 유통경로를 활성화하고, 단축된 신(新)유통경로 신설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
 - 기존 도매시장은 전자송품장 도입으로 물량 분산, 거래방식 전환(경매→정가·수의 매매) 유도 등 제도개선 병행
- (생산) 적정생산량 예측을 통한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으로 안정적 공급
- (소비)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이력제 확대 등을 통해 신뢰 제고

① 유통경로를 간소화하여 유통비용 절감

① 위판장 현대화, FPC·FDC 확충 및 연계 강화로 유통 간소화

-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을 저온·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는 동시에 산지거점유통센터^{FPC}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^{FDC} 확충* 및 연계강화^{6단계→4단계}

* 저온 및 거점 위판장(25→26): 83.5→102.1억 / FPC: 31.95→63.9억 / FDC: 3.75→30억

- (위판장) 저온·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을 지원하고, 양륙 단계부터 저온유통·친환경 설비로 운영하여 수산물 품질 및 위생 유지

* 위판장 현대화 시 재순환(플라스틱) 어상자로 전환 의무화하여 위생적인 유통 환경 조성

- (FPC) 산지 특성을 반영한 상품·상표 개발로 FPC를 브랜드화하고, 가공·판매 활성화를 위한 가공 역량 및 생산자 연계방안 평가

- (FDC) 쿠팡 등 유통플랫폼과 협업하여 FDC에 신규 판로를 확보하고, 상하차, 분류 등 자동물류시스템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

②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

- 온라인 도매시장^{6단계→4단계}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(60→134개),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

* 「수산물유통법」상 산지 중도매인은 산지 수산물을 소비지로 분산(판매)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, 농안법상 중도매인과 동일하게 구매자만 가입 가능

- 정산·결제자금 융자 지원(105억원), 수협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 간 여신 시스템 연계(~'28, 9개소)를 통해 진입장벽 제거

② 신(新) 유통경로 신설을 통해 유통단계 축소

① ICT 기반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-소비지 직통 경로 구축

- 조업 후 귀항 중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위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판장에서 하역·선별·경매과정 단축 등 유통비용 축소^{6단계→3단계}

* 모바일기기로 접속한 중도매인이 어업인 선상에서 사전 입력한 정보(어획위치, 어종, 물량 등)와 실시간 어획물 상태 확인하는 온라인 위판 운영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5억원 '26년~)

- 수산물 유통체계 혁신을 위한 ICT 기반 디지털 유통관리 체계 구축('26~)
 - 일시다획되는 대중성 어종(고등어, 갈치 등)을 대상으로 유통 단계별 영상 수집·인식 및 AI 기반 분석 체계 구축('26~)

② 소비지 직매장 설치 등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

-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^{6단계→4단계} 설치 지원('25~)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물류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 축소
 - * 수도권 30개소('25) → 충청권 30개소('26) → 단계적 확대
- 온라인으로 축소된 도매시장에 식당 등으로 실시간 배송체계^{6단계→5단계}를 구축하고, 관광 프로그램(식문화, 현장체험 등) 신설로 소비 활성화

③ 데이터 기반 수급 관리 및 스마트 혁신으로 공급망 안정화

①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양식 확산으로 생산기반 강화

- 사후 재해 복구지원에서 재해 피해 예방형으로 패러다임 전환
 - 긴급방류 제도 절차 개선*, 재해 대응 장비 사전 보급 확대 등 피해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 유지
 - * (기존) 어업인 신청·조사 → 해수부장관 사전협의 및 결정 → 방류
 - (개선) 품종·크기별 방류가능량 사전통지를 통해 어업인 신청·조사 → 방류
- 수급 예측 고도화 등으로 적정 생산면적을 도출하고, 이에 따른 양식면적 조정 및 계약생산 확대(408억원, ~'26)
 - 출하·유통 모니터링을 확대(현재 18개 품목)하고, 최근 가격 변동성이 큰 '감은 양식 면적 확대 및 계약생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 가격 관리
- 상습피해해역을 '기후변화 복원해역*'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,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품종 전환·양식지 이동**에 지원 강화
 - * 양식산업발전법령 개정안 마련(~'25.下)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양식업 경영 안정화 추진
 - ** 기후변화대응시범양식지원('26) : 16개소, 32억원
- '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 지구' 선정,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* 및 스마트 장비 보급** 등 스마트 양식업으로 전환
 - * ('25) 강원/연어, ('26) 포항/연어, 신안/새우, 제주/넙치, ('28) 당진/바다송어
 - ** ('25) 15개소 지원 (51억원) → ('26) 25개소 지원 확대 (125억원)

② 수급 예측, 공급망 관리 고도화로 가격안정 및 대응력 강화

- 수산물 수급예측모형 개발*, 생산-수급-수요를 연동한 AI 기반의 종합 예측모형 고도화 추진 등 선제적 시장 대응력 확보
 - * 어획산 6종(고등어, 오징어, 갈치, 명태, 참조기, 마른멸치), 양식산 4종(김, 굴, 전복, 광어) 등
- 주요 품목별 수급 전망에 따른 필요 적정생산 규모 산출·적용, 수급 불안시 공급국 확보·대체품 개발 등 공급망 관리 전략 마련
- 수산물에 특화된 소비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 및 구매패턴 분석(5억, '26~)

④ 디지털 기반 유통 투명화로 가격안정 및 신뢰 제고

① 도매시장 물량 분산 기반 마련을 통해 가격변동성 완화

- 시장별·품목별 거래 데이터 표준화 추진, 위판 플랫폼과 연동 및 전자송품장 시범 적용*('27~)으로 가격 급·등락 방지**
 - *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내 대중성 어종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('27~)
 - ** 전자송품장 적용 시 위판장에서 도매시장 유통 물량 등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되어 물량 집중 시 사전에 분산 유도 가능
- 경매의존도 완화, 안정적 가격 형성을 위해 결제자금 지원 확대(50억원→109억원), 용자 조건 완화 등으로 정가·수의매매 활성화

② 어획증명제, 수산물 이력제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

- 표준화된 어종 코드 개발, 온라인 위판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체계 구축 등 바다로 시스템*을 고도화하여 생산단계부터 정보제공 강화
 - * 수협 일선 조합이 어획된 수산물을 위판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산지 어획량, 어가 등 데이터를 축적한 수협의 근간 시스템
- 수산물 이력제 및 유통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투명한 관리 체계 마련
 - 컨설팅, 물품 지원 확대(32.5→38.5억원) 등을 통해 이력제 가입을 유도하고, 대형유통사·양식장 참여 확대를 위한 '수산물 유통법령' 개정
 - 수산물 위생에 중요한 콜드체인 유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'지능형 안심스티커'* 활용 단계적 확대**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
 - * 일정시간 특정 유지 온도에서 벗어날 경우 '색'이 변하게 설정되어 있는 스티커
 - ** 정부 비축수산물부터 시범적용하고, 향후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·홍보

순 서

I. 검토 배경	1
II. 그간 유통대책의 성과 및 한계	2
III. 현황 및 문제점	3
IV. 비전 및 목표	6
V. 세부 추진방안	7
VI. 과제별 추진일정	14

I. 검토 배경

◆ (유통환경 변화) 콜드체인 구축 필요성 증대 및 전통적 유통경로 축소

- 수산물은 어획 어업 특성상 농산물과는 달리 바닷가에 '위판장'이라는 유통경로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유통비용 증가
 - 유통의 시작점인 위판장부터 콜드체인(냉동, 냉장)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 수행 중*이나 미흡한 수준
 - * 저온·친환경 위판장 건립(18개소),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^{FPC}(15개소)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^{FDC}(3개소) 구축 등
- 수산물은 위판장, 도매시장이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으나, 온라인 직거래 등으로 전통적인 경로 역할은 축소되는 경향
 - * 도매시장 상장 물량(천톤): ('10) 395 → ('15) 410 → ('20) 317 → ('23) 299
 - 산지 위판장과 도매시장을 거치는 기존 유통과정에서는 물리적 이동 및 대기시간 증가 등 유통 효율성 저하로 근본적 개선 요구
 - * 과거에는 유통 인프라가 열악하여 유통 중 변질되는 점 등을 고려, 산지에서 위판 후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경매로 가격을 재평가하였으나, 소비지 2차 경매 필요성이 낮아짐

◆ (ICT 활용) 노동집약적 수산 현장 특성으로 인해 ICT 활용 미흡

- 노동집약적이며 표준화가 어려운 수산 현장은 ICT 도입을 어렵게 하여 혁신적인 기술 적용에 한계
 - 최근 발전하고 있는 AI, ICT 등 기술 적용 없이는 근본적인 유통 구조의 개선이 어려워 수산 현장에도 ICT 활용 시도 노력 중
 - 일본, 노르웨이 등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, 제도 도입 등 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
 - *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해 복합적인 인프라·장비가 필요하나,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어업인·유통업자가 단독으로 도입하기에 부담

< 일본의 물류 자동화·스마트화 >



< 日 오카도 수산물도매시장 >



< 상품 분류 로봇 >



< 입·출고 자동화 로봇 >

II. 그간 유통대책*의 성과 및 한계

*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('13.7),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('24.5)

◆ (성과) 생산자·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콜드체인 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, 유통경로를 다양화·간소화하여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

-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4)으로 산지 위판장 및 유통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 정립
- 부산공동어시장 포함한 거점 위판장 중심 저온·친환경 현대화를 통해 산지 위판장 물량 규모화·효율화 도모
 - * 부산공동어시장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('14.11), 현대화사업 시작('15~)
- 산지거점유통센터(FPC)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(FDC)를 연계하여 콜드체인 기반 생산자단체 중심의 대안적 유통경로 신설('14~)
-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경로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구매시스템 확충*('16~) 및 온라인 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('24.7)
 - * 영세업체(어업인)의 온라인 직거래 시장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진입을 위한 컨설팅 및 입점 지원

◆ (한계) 유통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, 제도적 제약, 수요 부족, 운영 비효율 등으로 추진상 애로 발생

-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지자체·지역수협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당초 위판장 현대화 목표(100개소, ~'28) 달성 지연 우려
- 단위수협 FPC는 당초 목적(가공·판매)보다 위판 중심*으로 운영 중이며, FDC는 신규 판로 확보 노력이 미흡**하여 경쟁력 부족
 - * '22년 수협 FPC 매출액 기준 위판 비율 69.1%, 가공·판매 29.0%, 보관 등 1.9%
 - ** '22년 FDC 제품 판매 매출액의 97.7%는 군납이며, 냉동품 보관의 20.4%는 정부비축물량 보관으로 공급처가 한정적
- FPC·FDC, 온라인 도매시장 등 대안적 유통경로를 마련했음에도 복잡한 기존 유통경로를 보완하기에는 한계
- 온라인 도매시장의 까다로운 가입 요건, 초기 단계로 판·구매자 간 신뢰 부족, 온라인상 품질 확인 어려움 등으로 거래실적 미흡*
 - * 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354억원 거래('25.10월)

Ⅲ. 현황 및 문제점

□ (규모) 수산물 유통산업은 전체 수산업 매출의 29%를 차지하며, 부가가치는 4.5조원으로 수산업 가치사슬의 중요 산업

* 매출규모('20) : <전체 수산업> 28.6조원, <유통> 8.3, <생산> 9.0, <가공> 11.3
 부가가치('20) : <전체 수산업> 10.2조원, <유통> 4.5, <생산> 3.5, <가공> 2.2

○ (산지) '24년 수산물 위판 물량(계통)은 국내 생산량 361만톤의 39.6%인 143만톤이며, 비계통출하는 60.4%인 218만톤

○ (도매) 상장물량은 29.5만톤, 거래금액은 1조 5,722억원

□ (경로) 수산물은 품종·생산 방식별 유통경로, 수요처 다양

○ (어획산) 연근해산 수산물(고등어, 갈치 등)은 대부분 산지 위판장 (1차 경매)과 도매시장(2차 경매)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

- 최근, FPC, FDC 및 온라인 유통채널 활성화로 다양한 경로로 유통 중

○ (양식산) 양식 수산물은 주로 공영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사매매 형식 (산지 수집상을 통한 직접 거래) 으로 유통되어 대부분 비(非)계통출하(67.8%)

< 수산물 유통경로 >



1

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성

-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* 및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폐사** 등 공급 불안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변동성 확대

* 연근해 생산량(톤): ('15) 1,058,319 → ('20) 933,880 → ('24) 841,347
(오징어) '20년 56,989톤 → '24년 13,546톤, (명태) '00년 86,832톤 → '24년 28,999톤

** 고수온 피해규모(억원): ('20) 2 → ('21) 292 → ('22) 10 → ('23) 438 → ('24) 1,430

- 특히, 수산업 특성상 금어기(약 4월~9월), 생산의 계절성(겨울이 주 생산시기) 및 비예측성*은 큰 폭의 가격 등락을 야기

* 고수온-적조, 남해안 양식장 50만마리 폐사('24.8.20., 동아일보)
오징어 사라진 어장에 청어방어때... 남해는 정어리 10배 이상 급증('24.4.24., MBN)

- 생산량 변동과 더불어, 위판장 및 도매시장의 경매제는 단기 가격 변동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 하나

- 일부 도매시장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 정가·수의 매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매 물량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*

* 공영도매시장 상장거래실적('24): 경매 65.2%, 정가·수의 34.8%

2

높은 부패율에 따른 보관·유통비용 부담

- 빠르게 부패하는 수산물 특성상 유통과정 중 신선도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(냉동, 냉장) 구축이 필수

- 위생·안전 제고를 위해 콜드체인을 구축 중이나, 주요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위판장은 전체의 11.3%(22곳)에 불과하며 지역 여건 고려 미흡

* 산지위판장 210개소 중 21년 이상 노후 위판장은 103개소(49.0%), 개방형 위판장·물양장은 160개소(76.2%)로 위생·안전 확보 필요

- 수산물 유통 시 필수 추가 시설(냉동, 활어수조 등)은 농축산물에 비하여 다소 높은 유통비용*을 야기

* 수산물 유통비용률은 평균 63.5%로 농산물(49.2%)에 비해 다소 높은 편('23)

3

복잡한 유통경로에 따른 비용 증가

- 잡는 어업(어획), 기르는 어업(양식)에 따라 유통구조가 상이하며,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양한 유통단계 존재
 - (어획산) 전통적으로 어획 수산물(고등어, 갈치 등)은 산지 위 판장(1차 경매)과 도매시장(2차 경매)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
 - * (유통경로) 생산자→산지위판장→산지중도매인→도매시장→소비자중도매인→소매업체→소비자
 - 최근에는 산지거점유통센터(FPC), 소비지분산물류센터(FDC) 및 온라인 유통채널 등 다양한 경로 생성 중
 - (양식산) 양식 수산물은 주로 공영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소매매(산지 수집상을 통한 직접 거래) 형식으로 유통되어 대부분 비(非)계통출하
 - * (유통경로) 생산자→산지수집상→소매업체→소비자
-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경로 및 현장 경매·수작업 중심의 유통 구조는 불필요한 유통비용 야기
 - * 유통비용에는 ① 경매를 위해 준비하는 양륙·배열 등 작업 비용, ② 산지 위판장 운영에 소요되는 위판 수수료, ③ 유통업자가 취하는 이윤이 포함

4

소비환경 변화 대응력 부족 및 신뢰 약화

- 가공식품 선호 등 소비패턴* 및 온라인 구매 증가** 등 유통·소비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, 도매시장 등 전통적 유통구조는 변화에 미온적
 - *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(23): 손질 후 구입(44.6%) > 포장 구입(40.7%) > 반조리 구입(6.3%)
 - ** 농축수산물 온라인 매출액(백억원): ('17) 9,419 → ('20) 15,828 → ('23) 22,886
- 기존 위판장·도매시장은 원물만 취급할 수 있어 1인 가구·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간편식품 선호 추세에 대응 곤란
- 소비자의 유통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고, 소비자 관심이 많은 위생 등 유통환경에 대해서 정보제공이 제한적

⇒ 유통과정의 구조적 개편과 디지털 전환, 기후위기 대응력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생산자-소비자 후생을 보장하는 합리적 유통구조 형성

IV. 비전 및 목표

비전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산자-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</p>	
목표 (~ '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수산물 유통비용률 10% 절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 5,000억원 ◆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%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도별 소비자가격 : ('20~'24) 17.4% → ('25~'30) 13% 이하 	
추진 방향	8 대 추진 과제	
비용 절감	유통경로 간소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위판장 현대화, FPC·FDC 확충 및 연계 강화로 유통 간소화 ②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
	신(新)유통경로 신설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ICT 기반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-소비지 직통 경로 구축 ② 소비지 직매장 설치 등으로 유통 단계 축소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
가격 안정	스마트 혁신으로 공급망 안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양식 확산으로 생산기반 강화 ② 수급 예측, 공급망 관리 고도화로 가격 안정 및 대응력 강화
	디지털 기반 유통 투명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도매시장 물량 분산 기반 마련을 통해 가격변동성 완화 ② 어획증명제, 수산물 이력제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

V. 세부 추진방안

전략 1 유통경로를 간소화하여 유통비용 절감

1-1 위판장 현대화, FPC·FDC 확충 및 연계 강화로 유통 간소화

-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을 저온·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는 동시에 산지거점유통센터^{FPC}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^{FDC} 확충 및 연계 강화(6단계→4단계)
 - * 저온 및 거점 위판장(25→26): 83.5→102.1억 / FPC: 31.95→63.9억 / FDC: 3.75→30억
 - (위판장) 저온·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을 지원하고, 양륙 단계부터 저온유통·친환경 설비로 운영하여 수산물 품질 및 위생 유지
 - * 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참여 시 재순환(플라스틱) 어상자로 전환 의무화하여 초기 단계부터 위생적인 유통 환경 조성
 - 위판장의 지리적 요건(바닷가 인근) 활용, 위판장 현대화 + 카페, 수산 레스토랑 등까지 갖춘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신규 수요 창출
 - * 국가는 기존 저온 위판장 지원 규모 내에서 지원하고, 추가 시설은 민간에서 투자(수협·민간 컨소시엄)하여 설치·임대토록 하여 지역 수협의 투자 수요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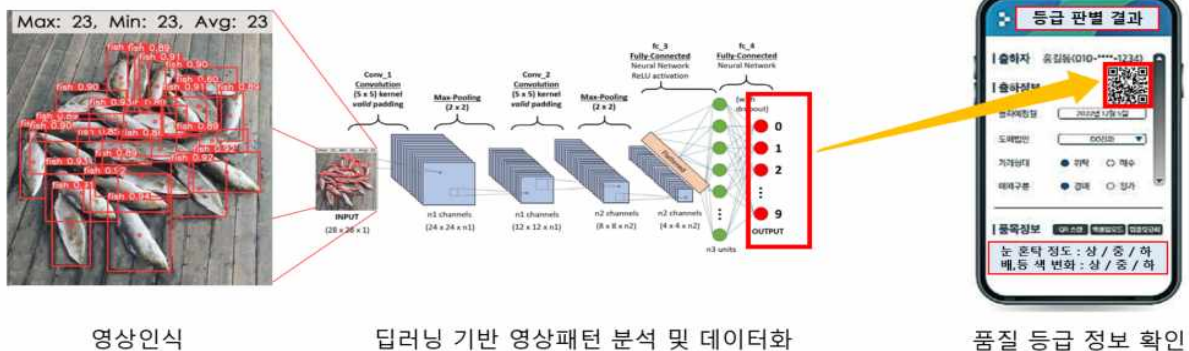


- (FPC) 산지 특성을 반영한 상품·상표 개발로 FPC를 브랜드화하고, 가공·판매 활성화를 위한 가공 역량 및 생산자 연계 방안 평가
 -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위판장과 연계하여 급속냉동(-40°C 이하) 기능을 갖춘 대형 어종(참다랑어 등) 전용 저온저장·제빙 시설 지원 검토
 - 산지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서지역에도 FPC를 설치*하여 현지 유통 효율화
 - * 도서지역 수산물을 육지로 이동 시 신선도 약화, 비용 증가 등 문제 발생
- (FDC) 쿠팡 등 유통플랫폼과 협업하여 FDC에 신규 판로를 확보하고, 상하차, 분류 등 자동물류시스템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
 - * 수도권 당일 배송 포장회 가공, 도매·전통시장 가공·저장 등 기대효과

1-②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

- **농수산물 공통** 온라인 도매시장(6단계→4단계) 신규 판·구매자 가입 촉진(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, '25.9월)
 -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(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제한→삭제) 및 이용자 대상 맞춤형 바우처 제공
 - 생산자 가격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거래 방식* 도입, 소비자와의 원활한 거래 연계를 위한 거래중개인** 육성
 - * 경매·역경매 기능 도입, 다품목·소량 거래 체계 구축 등
 - ** 판·구매자 시스템 적응 지원(컨설팅·교육·홍보), 산지 관리, 분쟁 조정 등 지원
- **수산물** 거래 품목 확대(60→134개), 규제 개선으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
 - 현재 냉동·건제품 품목 중심에서 거래 가능품목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수산물 주요 품목에 대하여 온라인 도매시장에 본격 진입('25.11~)
 - 수산업 특성에 맞게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*을 추가 개선하여 산지 중도매인을 판매자로 진입시켜 온라인 거래 활성화
 - * 「수산물유통법」상 산지 중도매인은 산지 수산물을 소비자로 분산(판매)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, 농안법상 중도매인과 동일하게 구매자로만 가입 가능
- **수산물** 온라인 도매시장 편의성 제고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거래 활성화
 - 정산·결제자금 융자 지원(105억원), 수협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 간 여신 시스템 연계(~'28, 9개소)를 통해 진입장벽 제거
 - 온라인상에서도 품질 확인이 용이토록 AI를 활용한 등급 판별 기술을 개발(마른김, 고등어 등)하여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유도

< (예시) 고등어 품질 등급 판별(안) >



2-① ICT 기반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-소비지 직통 경로 구축

- ICT 기술 활용 온라인 위판(전자경매) 시스템 도입 추진(6단계→3단계)
 - 조업 후 귀항 중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위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판장에서 하역·선별·경매과정 단축 등 유통비용 축소
 - * 모바일기기로 접속한 중도매인이 어업인 선상에서 사전 입력한 정보(어획 위치, 어종, 물량 등)와 실시간 어획물 상태 확인하는 온라인 위판 운영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5억원 '26년~)
- 수산물 유통체계 혁신을 위한 ICT 기반 디지털 유통관리 체계 구축 추진
 - 일시다획되는 대중성 어종(고등어, 갈치 등)을 대상으로 유통 단계별 영상 수집·인식 및 AI 기반 분석 체계 구축('26~)
 - 단계별 기록 자동화,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빅데이터화를 통한 유통 최적화 기반 R&D 추진

2-② 소비지 직매장 설치 등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

- 기존 유통단계를 축소(6단계→4단계)하여 저렴하게 수산물 소비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 설치 지원('25~)
 - 전국 주요 소비지 근처에 직매장 인프라를 확대*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물류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 축소
 - * 수도권 30개소('25) → 충청권 30개소('26) → 단계적 확대
- 온라인으로 축소된 도매시장에 식당 등으로 실시간 배송(6단계→5단계) 체계를 구축하고, 관광 프로그램(식문화, 현장 체험 등)* 신설로 소비 활성화
 - * (예시) 지자체, 여행사와 협업하여 팸투어(Familiarization Tour) 프로그램 마련 등
- 온라인 시장 등으로 축소된 도매시장에 시장 내 단순 가공·분산 시설(선별, 절단, 소포장 등)을 설치하여 직접 판매·배송 기능 검토

③-①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양식 확산으로 생산기반 강화

- 고수온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후 재해 복구지원에서 재해 피해 예방형으로 패러다임 전환
 - 긴급방류 제도 절차 개선* 및 액화산소 등 재해 대응 장비 사전 보급 확대 등 피해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 유지
 - * (기존) 어업인 신청·조사 → 해수부장관 사전협의 및 결정 → 방류
 - (개선) 품종·크기별 방류가능량 사전통지를 통해 어업인 신청·조사 → 방류
 - ** '25.10.9. 기준, 고수온 피해신고액은 180억원으로 전년 1,430억원 대비 약 13% 수준

- 수급 예측 고도화 등으로 적정 생산면적을 도출하고, 이에 따른 양식면적 조정 및 계약생산 확대
 - 출하·유통 모니터링을 확대(현재 18개 품목)하고, 최근 가격 변동성이 큰 '김은 양식 면적 확대* 및 계약생산 지원**'을 통한 안정적 가격 관리
 - * 김 양식 면적 확대 : ('24) + 2,700ha → ('25) + 626ha 추가 확대
 - ** 김 계약생산 융자 지원('26~, 408억원)을 통해 물김 가격 변동 최소화 등 물가 안정 추진

-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지 이동, 스마트양식 육성 등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 여건 조성
 - 상습피해해역을 '기후변화 복원해역*'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하고,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품종 전환·양식지 이동**에 지원 강화
 - * 양식산업발전법령 개정안 마련(~'25.下)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양식업 경영 안정화 추진
 - ** 기후변화대응시범양식지원('26) : 16개소, 32억원
 - '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 지구' 선정(~'25.下)* 및 정부 출자를 통한 AI·ICT 기업과 수산업계 간 합작법인 구성으로 기술혁신 가속화
 - * 선도지구 內 R&D, 인력, 시설 지원 등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여 스마트 선도모델 확립
 - 종자 시설 스마트·자동화 지원(30개소),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* 및 스마트 장비 보급** 등을 통해 양식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
 - * ('24) 부산/연어, ('25) 강원/연어, ('26) 포항/연어, 신안/새우, 제주/넙치, ('28) 당진/바다송어
 - ** ('25) 15개소 지원 (51억원) → ('26) 25개소 지원 확대 (125억원)

3-② 수급 예측, 공급망 관리 고도화로 가격 안정 및 대응력 강화

-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·예측을 기반으로 품목별 수급 관리 고도화
 - 수산물 수급예측모형 개발* 및 생산-수급-수요를 연동한 AI 기반의 종합 예측모형 고도화 추진 등 선제적 시장 대응력 확보
 - * 어획산 6종(고등어, 오징어, 갈치, 명태, 참조기, 마른멸치), 양식산 4종(김, 굴, 전복, 광어) 등
 - 주요 품목별 수급 전망에 따른 필요 적정생산 규모 산출·적용, 수급 불안시 공급국 확보·대체품 개발 등 공급망 관리 전략 마련
- 부류별·주요 어종별 구매패턴 분석 및 소비 촉진 기반 구축
 - 소비 전문패널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을 통한 행태 분석(5억, '26~)을 통해 유통구조를 소비자 맞춤형으로 지속 개선
 - * (현행) 수산물에 특화된 소비데이터가 부재하여 품목별 소비트렌드 파악에 한계

전략 4 디지털 기반 유통 투명화로 가격안정 및 신뢰 제고

4-① 도매시장 물량 분산 기반 마련을 통해 가격변동성 완화

- 도매시장별 거래 품목과 반입량을 정확히 예측·조정하여 사전 물량 분산 등 관리 강화
 - 품목별 분류체계 및 상품·거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, 출하 현장 거래 정보를 전자송품장 형태로 변환
 - 위판 플랫폼과 연동 및 전자송품장 시범 적용*('27~)을 통해 위판 물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가격 급등·락 방지**
 - *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내 대중성 어종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('27~)
 - ** 전자송품장 적용 시 위판장에서 도매시장 유통 물량 등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되어 물량 집중 시 사전에 분산 유도 가능
- 정가·수의매매를 활성화하여 경매의존도 완화, 안정적 가격 형성
 - * 정가매매: 출하자가 예정가격을 제시 / 수의매매: 판·구매자 간 거래조건 합의 경매제도: 다수의 참가자가 경쟁입찰(또는 공개호가)을 통해 물건을 낙찰받는 방식
 -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결제자금 지원을 확대(50억원→최대 90억원, '26)하고, 정가·수의매매 시 거래 의무량 등 용자 조건 완화 추진

4-② 어획증명제, 수산물 이력제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

- 유통의 시작점부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어획증명제 도입 추진
 - 표준화된 어종 코드 개발, 온라인 위판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체계 구축 등 바다로 시스템*을 고도화하여 생산단계부터 정보제공 강화
 - * 수협 일선 조합이 어획된 수산물을 위판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산지 어획량, 어가 등 데이터를 축적한 수협의 근간 시스템
 - 유통사업자 등에게 어획물 양도 시 어획확인서를 전달하여 어획 증명을 강화하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정



- 수산물 이력제* 및 유통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투명한 관리 체계 마련

* 생산자, 생산지역·일자, 가공업체 등 정보제공(참여율 14.9%, 82개 품목)

- 컨설팅, 물품 지원 확대(32.5→38.5억원) 등을 통해 이력제 가입을 유도 하고, 대형유통사·양식장 참여 확대를 위한 '수산물 유통법령' 개정*

* (대형유통사) 모든 지점이 개별적으로 등록 →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심사 규정 신설 (양식장) 양식장 HACCP, 무항생제 인증 등을 받은 경우 법령상 기록관리 의무 완화

- 수산물 위생에 중요한 콜드체인 유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'지능형 안심스티커*' 활용 및 단계적 확대**로 소비자 신뢰 제고

* 일정시간 특정 유지 온도에서 벗어날 경우 '색'이 변하게 설정되어 있는 스티커

** 정부 비축수산물부터 시범적용하고, 향후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·홍보

대책별 주요 유통경로



< 생산방식별 대책 비교(예시) >

구분	어획산	양식산
유통비용 절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FPC·FDC를 통한 유통 간소화 ○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확대 ○ ICT 기반 온라인 위판 시스템 도입(고등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비자 직매장 설치 ○ ICT 기반 온라인 위판 시스템 도입(물김)
가격 변동성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매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적용 ○ 정가·수의매매 활성화 ○ 수급예측모형 개발 및 공급망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면적 조정 및 계약생산 확대 ○ 스마트양식 확산 ○ 수급예측모형 개발 및 공급망 관리

VI. 과제별 추진일정

추진과제	일정	소관
① 대안 유통경로를 활성화하여 유통비용 절감		
① 위판장 현대화 및 FPC·FDC 확충 및 연계 강화로 유통 간소화		
○ 산지 위판장 저온·친환경 현대화	'25~	해수부
○ 대형 어종 전용 저온저장 시설 지원 검토	'26~	해수부
○ FPC 가공 역량 및 생산자 연계방안 평가	'26~	해수부
○ FDC 내 자동물류시스템 구축	~'30	해수부
②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		
○ 수산물 거래 가능 품목 확대(60→134개)	'25.下	해수부
○ 판매자 가입 요건 개선	'25.下	해수부
○ 정산·결제자금 용자 지원 확대	'26~	해수부
○ 수협공판장과의 여신 시스템 연계	~'28	해수부, 수협
② 신(新)유통경로 신설을 통해 유통단계 축소		
① ICT 기반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-소비지 직통 경로 구축		
○ 온라인 위판(전자경매) 시스템 도입 추진	'26~	해수부
○ 대중성 어종 유통 단계별 AI 기반 분석 체계 구축	'26~	해수부
② 소비지 직매장 설치 등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		
○ 수산물 전문 직매장 설치 지원	'25~	해수부
③ 데이터 기반 수급 관리 및 스마트 혁신으로 공급망 안정화		
①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양식 확산으로 생산기반 강화		
○ 긴급방류 제도 절차 개선	'26~	해수부

추진과제	일정	소관
○ 재해 대응 장비 사전 보급 확대	'26~	해수부
○ 김 양식 계약생산 지원	'26~	해수부
○ 기후변화 복원해역 지정 등 양식산업발전법령 개정	~'25.下	해수부
○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품종 전환, 양식지 이동 지원	'26~	해수부
○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 지구 선정	~'25.下	해수부
○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및 스마트 장비 보급	'26~	해수부
② 수급 예측, 공급망 관리 고도화로 가격안정 및 대응력 강화		
○ 수산물 수급예측모형 개발·고도화	~'30	해수부
○ 수산물 소비 데이터베이스 구축	'26~	해수부
④ 디지털 기반 유통 투명화로 가격안정 및 신뢰 제고		
① 도매시장 물량 분산 기반 마련을 통해 가격변동성 완화		
○ 품목별 분류체계 및 상품·거래 데이터 표준화 추진	'26~	해수부
○ 주요 도매시장 내 전자송품장 시범 적용	'27~	해수부
○ 정가·수의매매 시 도매시장 결제자금 지원 확대	'26~	해수부
② 어획증명제, 수산물 이력제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		
○ '바다로' 시스템(생산·위판 정보제공) 고도화	'26~	해수부
○ 수산물 이력제 적용 확대	계속	해수부
○ 대형유통사·양식장 참여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	~'26.上	해수부